

# 젊은 기술인들과 경영자들의 ‘열린 포럼’ 제우회 · 창조회, “허심탄회하게 얘기합니다”

〈글 / 오형석 ohs@mbakery.co.kr〉

베이커리 업계에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기술인들이 회원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이런 모임들은 기술 정보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십대 초반부터 삼십대 기술인 출신의 선후배들이 ‘열려 있는 기술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 2년 전에 결성한 ‘창조회’와 ‘제우회’의 연계 모임 자리를 찾아 이제 막 틈워나가려는 그들의 힘찬 비상 날개소리를 들어보았다.

## ‘생각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노력하며 발전시키자’

제우회와 창조회의 연계 모임이 있던 날, 창조회의 한 회원이 머쓱해하며 건넌 쪽지에는 창조회 모임의 모토가 적혀 있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그야말로 베이커리 업계의 ‘뜨거운 가슴’들이 동료, 선후배관계로 모여 정기 모임을 구성. 한 달에 한번씩 거르지 않고 여는 만남의 자리에서였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들의 모임이 갖는 목표의식.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그들끼리 통하는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회원간의 친밀감을 깊게 느낄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건 베이커리를 가지겠다는 목표는 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지만 회원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 모임의 장래를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이날의 모임은 창조회로서는 다른 때의 모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자리였다. 기술인 출신의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모임인 제우회 회원들과 연계 모임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 지난해 중반 결성된 제우회는 30대의 기술인 출신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회원 모두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이다.

창조회의 정규 회원은 17명으로 모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이다. 매달 정기 모임을 가지며 2달에 한번씩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고급 기술을 익히려는 그들의 노력은 세미나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창조회의 한 회원은 “회원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가 끝난 후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초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결국 고급 기술의 공유라는 메리트가 회원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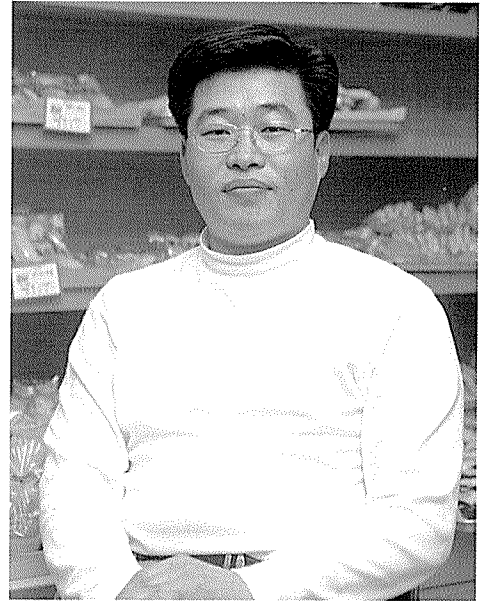


**'제우회', 후배들과 함께 내실 있는 모임 꾸려갈 것**

경영자 모임인 제우회와 기술자들의 모임인 창조회가 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연계모임을 가지게 된 데는 제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길씨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한다. 두 모임 회원들의 성향을 모두 알고 있으며 특별한 반대 없이 기술 세미나 등 공동행사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산파역할을 했다는 게 두 모임 회원들의 중론. 제우회 이춘길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이 정기 모임을 만들어 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전해와 몇 가지 부분에서 조언을 해준 정도”라며 “단순한 친목모임에서 벗어나 회원들이 추천하는 제품의 정확한 배합표를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모임은 국제행사가 많은 올해를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축적해나가는 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김상업제과기술학원에서 열린 발렌타인데이 등의 이벤트 제품 세미나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3월 말경 무스를 중심으로 한 양과자제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한 실용성 있는 제품을 위주로 제품 세미나를 기획해나갈 것이라는 것이 모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급제품이나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을 우선 한다는 것. 여기에는 자영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타개해보겠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깔려 있다. 공허한 기술적인 허세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겠다는 회원들의 단단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발걸음이 언젠가는 정상에서 서 있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3]



▲ 제우회 초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춘길회장.

▼ 경영자 모임인 제우회의 임원진들. 모임의 운영에 관한 토론을 비롯해 기술세미나와 경영세미나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한다.



▲ 창조회 주요 멤버들. 2000년 젊은 제과기술인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업계의 '차세대 대표'임을 자부한다.

▲ 세미나와 운영회의를 끝낸 후 제우회 주요멤버들의 뒷풀이 모습. 이들은 모임발전과 기술교류에 대해 토론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